

#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만든다

### 2027년까지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추진 등 인권존중 정책 추진

전주시가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인권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아동·청소년과 여성, 노인, 장애인, 주거취약계층,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누구나 보호받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인권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2차 기본계획은 민선8기 주요 공약 사업과 시 주요 정책 수행과정에서 인권이 자연스럽게 고려될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라는 비전 아래 △사람중심 인권도시 △안전보장 행복도시 △함께하는 공존도시

△인권중심 행정도시 등 4대 목표 4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시는 환경과 청년, 노동자, 스포츠, 디지털 성범죄, 1인 가구, 자살 예방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확대된 인권개념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시민이 범죄와 각종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시는 △인권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5급 이상 간부 및 신규공무원 맞춤형 인권교육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자생단체 대상 찾아가는 시민인권학교 △출연기관, 민간위탁·복지시설 대상 현장 중심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와 소속기관, 출연기관, 민간위탁·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조사 및 증상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일례로 시는 지난 6월에는 사회복지시설 고충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직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다양한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 상담·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에도 행정 전 과정에서 인권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 기념 '인권공감 문화행사', 지역 인권 현안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 관내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고충처리담당자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5월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듬해인 2016년 인권팀을 신설하고 '전주시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2017년에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인권옹호관을 배치하는 등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을 다져왔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시정 전반에 걸쳐 인권이 존중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과 여성, 아동 등 인권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맛배달 정기구독 서비스 개시

커피·꽃·과일·공연티켓 등 다양한 구독상품 입점

전주시민들은 8월부터는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을 이용하면 커피와 꽃, 과일, 공연티켓 등의 상품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주시는 최근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각광 받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전주맛배달 가입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주맛배달 정기구독 서비스 홍보 이미지. <사진=전주시청 제공>

'정기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결제하고 주기적으로 배송받는 신개념 유통서비스로, 소비자는 시간과 금액을 절약하고 공급자는 고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맛배달 정기구독 서비스는 앱 내 신설되는 '전주구독' 카테고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전주맛배달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제휴서비스 약관만 동의하면 된다.

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정기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입점 소상공인 모집 공고를 거쳐 스낵과 피자, 스낵과 피자

공연티켓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전주구독'에 입점시켰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맛배달 정기구독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첫 구독 시 적용 가능한 5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디스콘 에어랩 △태블릿 △스마트워치 △플레이스 테이션 등 최신 구매수요를 반영한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 행사 등 오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앱 화면 또는 전주맛배달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18일까지 모집

전주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사회적경제란 환경과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는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2~5명이 한 팀을 이뤄 SNS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소개·홍보하는 등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서포터즈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을 2회 이상 방문해 대표자 인터뷰와 생선품(서비스) 체험, 근로자 인터뷰, 사회서비스 활동 등의 참여후기를 SNS에 올리게 된다. 또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시민장터 등 시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참여자에게는 교통비와 식대 등 활동실비와 SNS 포스팅 수당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활동 종료 이후 수료증이 발급과 더불어 성과 발표 및 우수 활동 팀 시상도 이뤄진다.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에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 포스팅이 가능한 전북지역 만 18~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2winlaw@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 '강한경제 전주' 위한 핵심사업 국비 확보 총력

### 김인태 전주시장, 정부세종청사 찾아 기재부·행안부 방문 예산 반영 건의

전주시가 전주 경제의 판을 바꿀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의 본격적인 추진과 전주의 대전혁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인태 전주시장은 지난달 31일 '강한경제 전주'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2024년 국가예산 사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앞서 시는 각 부처에서 작성한 정부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이후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예산안 반영을 적극 건의해왔다.

이날 김 부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가 진행 중인 기재부를 찾아 예산심의관 3명과 실무 예산과장 5명을 차례로 만나 지난 1차 심의 시 미반영됐거나 삭감된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김 부시장이 건의한 핵심사업은 △후백제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연구 및 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호남권 대표거점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주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글로벌 드론 강국 성장을 견인한 '드론 핵심기술개발



김인태 전주시장(사진 오른쪽)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사진은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방문 모습)

수주기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한 김 부시장은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및 교부세과를 방문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도로조명시설 조도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

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오는 9월 2일까지 전북도,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인태 부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로 인해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예산안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까지 더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 본질 기능, 미래성장동력 등 4대 중점 투자 대상 중심으로 논리를 보강해 예산삭감 방지와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청년이음전주',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가 지역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 자기개발을 물론, 심리회복까지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청년이음전주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운영해온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문화수업 △청년재능공유학교 △청년이음전주 서포터즈에 신규 프로그램인 '청년 자아실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이음전주(완산구 현무1길 31-5)는 전주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그간 1:1 방식으로 진행했던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10명~15명 그룹 강의)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청년이음전주에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하반기 문화수업 10개 과정이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나만의 캐릭터만들기&캐릭터만들기(7월) △뮤지컬댄스&오일파스텔(8월) △반려동물 식품전문가 자격증반 △가죽공예 △퍼스널 컬러&메이크업 △자기공예(9월~10월) △스카카오 이모티콘 디자인 △커피&베이킹 쿠킹(11월) 등이다.

하반기 신규 프로그램인 '청년 자아실현 프로그램'은 4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개인의 강점을 알아볼 수 있는 '스트레스' △심리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선전적인 캐릭터를 찾아보는 'ICSI'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한 감정과 치유를 위한 '스트레스 대처법' △자존감 향상을 위한 '마음 근육 강화' 프로그램이다.

또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취업교육 △진로탐색 △자기개발

문화수업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 7시부터,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각각 2시간 동안 펼쳐진다.

여기에 청년이음전주에서는 진로, 기술, 문화·여가, 자기개발, 언어, 금융·계약 등 6개 분야의 재능을 가진 청년 재능강사 20명이 1일 강사가 돼 재능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과 재능과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청년재능공유학교'도 열린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